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2007. 11

통일정세분석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2007. 11

정 영 태 (북한연구실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개요	2
III. 내용	3
IV. 배경	5
V. 분석 및 전망	7
1. 분석	7
2. 전망	11

I. 문제제기

- 북한에서는 그 동안 ‘선군정치’ 통치체제하에서 군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에 대한 군대 우위 주장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근거해서 확산되어 왔음.
 - 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며 무너진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민통제에 군대동원
 - 군이 주요 공장 기업소들을 장악하고 당과 행정부문에 대한 직접 관리하는 사례 증대
 - 주요 경제부문에 군을 투입하여 실천적 모범사례 시위 등

-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내부적 혼란과 이탈현상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북한의 당-정-군은 본연의 위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지난 1994년 3월 처음 개최된 이후 약 13년 7개월(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처음)만에 말단 당 기층조직인 당세포 비서 대회가 전국적 규모로 열리게 된 것은 북한 노동당 기층조직 차원의 ‘정상화’ 움직임으로 이해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번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의 배경, 내용 그리고 향후 활동전망 분석을 통해서 북한 노동당 기층조직의 ‘정상화’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임.

II. 개요

- 북한은 2007. 10. 26-27, 『4. 25 문화회관』에서 당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를 개최(10. 27. 조선중앙방송) 하였음.
 - 동 행사는 첫날, 대회사(최태복)→ 축하문(김영남)→ 보고(최영림)→ 토론 순으로, 둘째 날, 폐회사(최태복)→ 토론→ 김정일에 대한 맹세문 채택 순으로 각각 이루어졌으며,
 - 김영남,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홍석형,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는 1994년 3월 평양체육관에서 첫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이후, 약 13년 7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며 동 대회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음.
 -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는 1990년 10월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서한을 보낸 것을 계기로 『충성의 당세포 창조 운동』으로 시작

Ⅲ. 내용

- 이번 『전국 당세포 비서 대회』의 목적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 공격전에 당원들과 근
로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전국 「당세포 비서 대회」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당사업 전반에서 획
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선군혁명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데서 중요
한 계기로 되는 의의 깊은 대회”(김영남 축하문)

-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음.

- 첫째, 체제수호

“모든 당세포들은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당원들
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반미, 반일 계
급의식, 높은 준법의식을 심어주어 적들의 악랄한 사상 문화적 침투책
동과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
리의 위업을 견결히 수호”(김영남 축하문)

- 둘째,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제고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모든 당세포 비서
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강화발

전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김영남 축하문)

“당세포비서들은 당원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하고 새로운 비약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힘있게 이끌어 가야한다. (...) 예리한 정치적 안목과 투철한 당적, 계급적 원칙성을 지니고 온갖 비관적,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이색적인 요소들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서 날카롭고 견결한 투사가 돼야 한다.”(최태복 폐막사)

- 셋째,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고취 선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공격전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늘 당세포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제”(김영남 축하문)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혁명적 진군에서 당세포들이 당의 말단기층조직으로서, 당정책 관철의 기본전투단위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자면 당세포비서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사업기풍, 일본세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최태복 폐막사)

IV. 배경

- 2000년대 이전, 북한의 권력 핵심인 당과 권력기관들의 부패로 통제기능이 마비되고 체제에 대한 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위기감이 확산되었음.
 - 당중앙일군들의 직권남용 및 비리가 공공연하게 확산되었고 권력실세를 중심으로 뭉치거나 일정 조직의 실무담당자들 간의 모임이 구성되는 등의 ‘그룹화’가 진행된 적도 있었으며,
 - 당중앙 내부에 지도원, 부과장들로 소규모의 그룹이 조직되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직권을 이용한 다양한 비리가 자행되었음.

- 당내에 ‘비관주의’가 확산되고 간부들 속에서 동요와 변화요구, 위기감이 증대되었음.
 - 1990년대 초부터 당내에 이대로는 희망도 없고 얼마가지 못한다는 비관주의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현상유지, ‘자리 지키기’ 등의 행태가 보편화

- 권력과 돈의 유착으로 당의 통제기능 마비
 - 당 일군들은 ▲ 당권을 이용하여 비리, 횡령을 묵인하고 뇌물을 수수, ▲부정에 직접개입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고 거짓보고를 일삼는 행위 자행
 - 행정실무일군들은 당과 사법기관과 유착하여 권력과 능력에 따라 국가재산과 자금을 횡령하고 나눠먹기 행위를 자행
 - 사법기관 일군들은 대가를 받고 이러한 행위들을 도와주고 묵인하고 직접 개입

-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무질서는 점차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전환되었고 전사회적으로 사상적 동요가 급격히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을 동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군에 의한 통치방식을 선군정치로 정형화 해왔음.
- 그러나 체제가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군에 의한 사회적 통제에서, 군을 사회적 모범집단으로 앞세워 전 사회를 획일적으로 동원해나가는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음(사회적 통제수단 → 사회 교양교육 및 선전선동을 포함한 전위대 역할로 변화).
 - 군의 사회통제 기능과 역할을 점차적으로 제한하면서 대신 당의 기능과 역할 정상화 제고
- 실제로 최근 북한 당국은 당 조직의 활성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가 김정일 정권 탄생 후, 처음(13년 7개월만에) 개최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임.

V. 분석 및 전망

1. 분석

-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기본 당 조직은 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상층부부터 하부말단까지 부패와 권력비리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민심자극, 불평불만, 부패타락, 불량행위, 배금주의, 미신행위, ‘술풍’, ‘무직건달’ 등)가 북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부각되고 있음.

- ※ 특히 미신행위 및 사주팔자를 보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당적·법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 실제로 북한 당국은 내부의 ‘사상적 오염’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한 당의 조치들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

“지금 일부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만성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면 지어 거기에 유혹 당하고 있다. (...) 그것은 사업과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그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¹⁾

1) “당의 방침에 대하여,” 『학습제강(당원 및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 91, 2002), p. 3.

- 외국영화 시청 확대: 홍콩, 한국, 미국영화 순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 영화는 깨끗해서 보기가 싫다고 하면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의 록화물 영화를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 갔다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책이나 록화물을 몰래 감추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 한국 및 외국방송 청취

“지어 일부사람들은 반도체라디오를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 남조선과 다른 나라 방송을 듣고 있다.”

- 젊은 층의 부르쥬아 자유화 바람

“부르쥬아자유화 바람은 특히 젊은 사람들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짝하면 별치 않은 일로 리혼하고 있으며 서양식, 왜놈식의 본을 따서 옷차림과 몸치장을 보기에다 흥측하게 하고 다니고 있다.”

-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두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게 되겠는가”고 반문하고, 사회 전 조직에 대한 당의 사상교양사업 및 조직행사를 그 어느 때 보다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토요일학습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빠진 당비서, 행정책임자들을 시멘트 공장 노동자로 내려 보내 1개월간 무보수 노동을 시킴.
 - 당, 군, 민에 대한 충실성, 절대성, 무조건성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정치행사와 사상교육 등의 집체행사를 하도록

유도

“우리사회의 일심단결이 파괴되고 적대계급이 발붙이고 준동할 수 있는 틈이 생겨나며 민족의 생명인 민족성까지 다 잃게 된다. 부르조아사상 문화적 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

- ※ 여유를 주면 잡생각을 하게 되고 잡생각이 많아지면 불평이 많아지며 결국은 나쁜 행위로 이어진다는 논리 하에 군인들은 물론 당원, 일반 민간인들에게 잡생각을 가질 여유를 주지 않도록 노력
- ※ 토요일, 일요일에도 휴식할 지 출근할 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명절이나 공휴일에도 개별적 휴식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
- 이렇게 볼 때 이번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는 당세포조직의 전국 집체행사를 통해 전국 당세포조직의 이완현상과 이탈상황을 재점검하고 단속하는 의미를 지닌 ‘당정상화’의 일환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연례적으로 개최되어온 당 관련 행사에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당중심의 단결을 강조함으로써 당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함.
- 김정일 당사업 개시 43돌을 맞아 「4. 25 문화회관」에서 당, 정, 군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북한 당국은 먼저 “우리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쳐부술 수 있는 자위적 국방력을 가지고 자주권과 이익을 드팀없이 지켜나가는 강위력한 군사강국으로 일떠서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체

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출

- 이에 더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를 받들어 온 도처에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며 당의 영도를 강조

○ 당총비서 추대 10주년(10. 8) 및 당창건 62주년(10. 10)을 맞아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해 “지금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고”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당의 체제안정 역할을 부각시켰음.

○ 그러나 당총비서 추대 10주년 행사나 당창건 6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진행되고 중앙보고대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중앙당 행사를 약화시키는 대신 당의 기층조직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도 있음.

- 당총비서 추대 1~6주년(1998년~2003년)까지는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04년부터 개최하지 않았고 추대 10주년이 되는 금년 역시 「중앙보고대회」를 미개최
- 당 창건기념 「중앙보고대회」는 1990년대 이후, 2회 개최(1997년, 2005년)로 머물렀음.

2. 전망

- 따라서 북한 당국은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관련, 노동신문 사설(10. 26)에서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를 통해 첫째, 당 조직의 사상적 강화, 둘째,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 진지 강화, 셋째,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일대 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당세포 총회에서 1년 임기로 선출되어 말단 당 기층조직을 책임지고 당원들의 생활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초급 일꾼인 당세포의 비서 대회는 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당 하층 간부의 전체 회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동 대회 개최 후, 각급 당세포 조직들은 당조직 사상강화, 사회주의 정치사상적 진지 강화 및 경제강국 건설 관련, 구체적 임무관철을 위한 집체적 행사들을 조직하고 개최해나갈 것임.
- 향후 당세포 조직의 이러한 집체적 행사는 ‘당과 혁명령도의 일심단결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²⁾
 -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정일의 ‘위대성’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모든 사업의 기본으로 하고 군중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유도
 - ⇒ 이를 위해서 “당세포들은 위대성 교양을 한번 해도 사람들 속에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숭배심이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생동한 사실 자료들을 가지고 실감 있게 하여야” 하며,
 - ⇒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

2) 「세포비서 10」, 당 교양자료 (평양: 조선로동당, 주체 91, 2002) 참조.

게 묶어 세워”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음.

- 또한 사회주의 정치사상적 진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 차단을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임.³⁾
 - “지난 시기 당조직들에서 자본주의사상문화침투를 막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 내밀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내부에 부르조아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의 불건전한 요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불건실한 자들과 청년들을 통하여 암암리에 그것이 더욱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당조직들은 “자본주의사상문화적 침투를 막는데 총화력을 집중하여 이 사업을 더 철저히, 더 강도 높게, 더 완강히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당의 강화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당세포 조직들을 유도해나갈 것임.⁴⁾
 - “해당단위에서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모를 박고 분공을 실속 있게 줌으로써 분공수행과정이 혁명과업수행과정으로 되게 하며 혁명과 업무수행에서 당원들이 언제나 군중의 모범이 되고 선봉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독려함.

- 남북관계 활성화, 북미관계 개선, 6자회담 진전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내부의 일탈현상 확대
 -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주민들의 기대와 동요 확대
 - 주민들의 대적관념의 약화로 인한 불만수위 상승

3) 위의 글 참조.

4) 위의 글 참조.

- 이렇게 볼 때, 향후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와 같은 기층조직 차원의 당조직 행사는 더욱 더 활발하게 빈도를 높여나가면서 추진될 가능성이 큼.

【첨부】

北, 전국당세포비서대회 개막

(10.27, 조선중앙방송)

전국당세포비서대회가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로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린 대회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키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됩니다.

대회에는 우리 당의 말단 기층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헌신해온 당세포 비서들과 중앙과 지방의 당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당세포의 강화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모든 당세포들이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전위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과학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됩니다.

4.25문화회관 6천석 대회장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을 전투적인 당세포들을 초석으로 하는 혁명적 당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으로 끓어번지고 있었습니다.

대회장 정면에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가 휘날리는 조선노동당 기폭에 모셔져 있었습

니다.

그 배경에는 윗 부분에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 모형과 전국당세포비서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으며 아랫부분에 선군 혁명, 결사옹위, 일심단결, 강성대국이라는 글발을 새긴 붉은 깃발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습니다.

대회장에는 또한 ‘전당을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만들자’,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최태복 동지, 최영림 동지, 홍성남 동지, 홍석형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동지, 김중린 동지, 김기남 동지와 중앙과 도의 당 책임일꾼들 여러 부문의 모범적인 당세포 비서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습니다.

개회사에 이어 애국가가 주악됐습니다.

대회에서는 전국당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영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 위원인 최영림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부문당비서 신정근, 강서군 청산 협동농장 당세포 비서 김종덕,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당세포 비서 리종길,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당세포 비서 강석수, 선교편직공장 당세포 비서 강금주, 김일성종합대학 당세포 비서 리경영, 희천공작기계공장 당세포비서 오일태, 국립교향악단 당세포 비서 한철, 천성 청년탄

광 당세포 비소 라학석, 서평양기관차대 당세포 비서 김명원, 보천보 혁명박물관 당세포 비서 리명화, 자강도 중소발전소 관리국 당세포 비서 맹용혁, 세포군 인민병원 당세포 비서 차순희, 라남탄광기계연합 기업소 당세포 비서 안국필, 구성닭공장 당세포 비서 장종임, 금속공업상 당세포 비서 윤승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당세포 비서 고규환이 토론했습니다.

대회는 계속됩니다. ㉠

【축하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국 당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냈습니다. 축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당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영도 따라 선군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 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 당 세포비서대회가 열리었다.

전국 당 세포비서대회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주체의 당 건설 위업과 사회주의 위업을 백전백승의 한 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며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당 사업 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선군 혁명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의의 깊은 대회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당 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제 1선에서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선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모든 당 세포비서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당 세포는 당 조직 체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며 당 세포를 강화하는 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의 당 건설 이론을 창시하시고 노동계급의 당 건설 사상 처음으로 당의 기층조직을 먼저 건설하고 그것을 확대 강화하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당 창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었으며 우리 당 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신 전역사적 노정에서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 세포를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놓으시었으며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 때 대한 구호를 내놓으시고 선군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당세포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비상이 높여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다.

우리의 당세포들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와 더불어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고 선군혁명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데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당세포들은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유일 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데 고귀한 기여를 하였다.

당세포들은 준엄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정

신과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참된 선군혁명 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를 비상히 강화하였다.

당 세포들은 우리 당의 총대중시, 군사중시 노선을 높이받들고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 일으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제일 생명선인 반제군사전선을 필승불패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고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당세포들은 우리 당의 웅대한 부강조국건설 구상을 높이받들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으로 온 나라에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과 성장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세차게 내려치게 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타개하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

우리 당이 유례없이 준엄한 환경속에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를 단호히 짓부시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승리와 성과들에는 당의 핵심역량인 당 세포비서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적이 깃들여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모든 당 세포비서들이 우리 당의 조국정치일꾼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지니고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공헌을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을 강화 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당 세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우리 혁명 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는 지금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말단단위에서 당을 받들고 있는 초석인, 당 세포를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시기 당 세포의 중심과업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높이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선군혁명 총진군으로 힘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모든 당 세포를 우리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위조직으로 만들자, 이것이 오늘 당 세포들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모든 당 세포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주체의 당 건설 사상을 절대적인 지침으로 틀어쥐고 세포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당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

모든 당 세포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상징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세포를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과 뜻,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모든 당세포들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선군혁명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끊임없이 심화시켜 세포 안에 오직 영도자의 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당의 노

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당세포들은 우리 당의 사상중시 노선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 사업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벌여 당원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계 키워야 한다.

모든 당세포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포를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 효율성을 지닌 전투적인 조직으로 튼튼히 꾸리며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세포 안에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당생활 기풍을 세우고 당원들이 혁명과업 수행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세포들은 사회주의에 기초인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적극 옹호 실현하고 사람들의 마음관리사업, 사상과 의지, 감정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더욱 굳건히 보장하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세포들은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반미, 반일 계급의식, 높은 준법의식을 심어주어 적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한다.

모든 당 세포들은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군사중시 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공격전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늘 당 세포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당 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사상과 이론, 방침들을 깊이 해설침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동료와 비판을 모르는 강한 정신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 그들이 필승의 신심 드높이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나가며 혁명적 군인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 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학과 교육, 문화예술과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재화기를 열어나가며 혁명적 군인문화를 따라 배워 고상하고 낭만적인 문화정서 생활기풍을 세우고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 비서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선군혁명총진군의 요구에 맞게 세포를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세포 비서들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꾼들처럼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높은 혁명성을 지니고 우리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는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당세포 비서들은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과의 사업에 능수가 되어야 하며 대중을 보람찬 투쟁과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주는 친근한 교양자가 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진격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당세포 비서들은 왕성한 사업의욕과 당적 책임감을 지니고 본신헌 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세포사업에 헌신분투하는 정렬가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창조적 기수가 되어야 한다.

당세포 비서들은 투철한 당적 계급적 원칙성을 지니고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이색적인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견결한 투사가 되어야 하며 균중성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 주는 일꾼, 우리 세포비서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능력이 있으며 당원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일꾼들로 당세포 비서 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당세포 비서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모든 당세포 비서들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 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체96(2007)년 10월26일.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함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

연례 정세 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통일정세분석 2007-11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7년 11월 일
발행일	2007년 11월 일
